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번역물 품질에 대한 고찰 — 체스터만의 규범을 중심으로*

홍 정 민
(이화여대)

1. 서론

뉴스 번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천 텍스트(이하 ST)의 형태에 대한 충실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목표 독자의 수요와 기대에 맞게 ST의 형태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허용되고 때로는 요구된다(Bassnett 2006: 6; Bielsa 2007: 11, 142, 144; Bielsa & Bassnett 2009: 63; Doorslaer 2010: 182-83). 뉴스 번역은 또 문학, 희곡 등 다른 분야의 번역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수의 독자들에게 소비되면서 이들의 의견 수립과 세계에 대한 인식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Bani 2006: 35). 이는 뉴스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여타 분야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와는 다른 전략과 판

* 본 연구는 홍정민(2014)의 박사학위논문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역할과 지위 연구 —영어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가운데 일부를 발췌 및 수정 보완한 것임.

단이 요구되며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 역시 다른 분야의 번역에서와는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Bassnett 2006: 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이나 언론학 내에서는 뉴스 번역의 이러한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뉴스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¹⁾ 이에 본 연구는 체스터만(Chesterman 1997: 64-66)의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뉴스 번역의 규범을 파악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뉴스 번역 결과물의 품질 판단 기준을 마련한 뒤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들이 생산한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국내 언론사의 번역사는 뉴스를 번역할 때 텍스트에 어떻게 개입하고 변형을 가하는가?

둘째 번역사의 텍스트 개입 개입 및 변형 양상은 체스터만의 번역 규범 관점에서 본 뉴스 번역의 규범에 부합하는가?

셋째 이러한 규범 부합 여부는 뉴스 번역사가 생산한 뉴스 번역 결과물의 품질과 관련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체스터만의 번역 규범

번역 과정과 그 결과물이 목표 문화나 언어에서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한지’는 해당 과정과 결과물의 규범(norm) 준수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번역 규범이 번역 과정의 정당성과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 규범이란 하나의 공동체가 번역에 대해 공유하는 기본 개념과 가치이자 개별 상황에 적절히 적용될 수

1) 국내 대표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디비피아(www.dbpia.co.kr)에서 ‘뉴스 번역’, ‘기사 번역’과 ‘평가’, ‘품질’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한 결과 관련 연구는 단 1건도 찾을 수 없었다.

있는 수행 지침으로(Toury 1995: 55) 투리 등 기술론적 번역학(DTS,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 가운데 특히 체스터만(Chesterman 1997: 64-70)이 제시한 두 가지 번역 규범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체스터만은 번역 규범을 번역물을 규율하는 규범인 기대 규범(expectancy norms)²⁾과 번역 과정에 대한 규범인 직무수행 규범(professional norms)³⁾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처럼 규범을 결과물과 과정으로 구분한 체스터만의 개념이 번역자가 내리는 일반적인 선택에 대한 기본 규범(initial norm), 번역 정책과 번역의 직접성과 관련한 환경 규범(preliminary norm), 형체 규범(matricial norm)과 텍스트 언어 규범(textual-linguistic norm)을 아우르는 실행 규범(operational norm)⁴⁾으로 구분되는 투리의 개념(1995: 56-59)에 비해 단순하고 명확해 실제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기대 규범은 특정 유형의 번역물이 어떠해야 한다는 목표 독자들의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지 여부가 해당 번역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기대 규범은 또 목표 문화의 지배적인 전통, 목표 언어에서 유사한 텍스트 유형 또는 장르의 담화 관습, 경제 및 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교사, 문학 비평가, 번역 비평가, 출판사 등 규범의 권위자(norm-authority)⁵⁾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한다(Munday 2008, 117 재인용).

직무수행 규범의 경우 번역 과정을 규율하는 것으로 기대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직무수행 규범은 다시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되는데 책무 규범(accountability norm)은 번역사가 자신의 번역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이고 의사소통 규범(communication norm)은 해당 상황에 맞게 모든 참여자 간 의사소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며 관계 규범(relation

2) 해당 용어에 대한 번역은 정연일과 남원준(2006: 159-160)을 따랐다.

3) ‘직무수행 규범’이라는 용어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4) 해당 용어에 대한 번역은 정연일과 남원준(2006: 159-60)을 따랐다.

5) 어떠한 사회든 대중들에게 그러한 규범의 정당성을 확인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을 일컫는다(Chesterman 1997: 66).

norm)은 ST와 TT 간 적절한 유사성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언어적 규범이다. 직무수행 규범 역시 그 근거는 해당 사회 내 규범의 권위자가 제공하며 여기서 규범의 권위자란 해당 사회에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능력 있는 전문적 번역사(competent professional translators)로 인식되는 구성원을 일컫는다. 이들의 행위는 규범을 설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반대로 특정 번역물이 관련 기대 규범에 부응하는 것으로 수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를 번역한 주체 역시 능력 있는 전문가로 인정됨을 의미한다(Chesterman 1997: 67-69). 본 연구는 이러한 체스터만의 규범 개념을 바탕으로 뉴스 번역에서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을 파악한 뒤 이를 번역물 품질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번역사들이 생산한 번역 결과물을 분석해보았다. 특히 뉴스 번역이라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언론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번역학과 언론학적 관점 모두에서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을 파악해보음으로써 뉴스 번역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규범을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포괄하고자 했고, 이들 규범을 골고루 아우르는 일련의 기준을 토대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뉴스 번역 과정과 그 결과물이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뉴스 번역의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2.2. 뉴스 번역의 규범

2.2.1. 번역학적 관점의 뉴스 번역 규범

번역학적 관점에서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에 대한 단서는 라이스(Reiss 1989: 108-109)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라이스는 텍스트의 유형을 기능에 따라 정보적, 표현적,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하고 각 텍스트 유형에 따른 성공적인(successful) 번역 방법을 제시했는데, 각 텍스트 유형의 기능적 특징과 이에 따른 번역 방법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텍스트 유형 별 기능적 특징과 번역 방법(Reiss 1971, Munday 2008: 73 재인용)

텍스트 유형	정보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작용적 텍스트
언어 기능	정보적(사물 및 사실 전달)	표현적(발신자의 태도 표현)	호소적(수신자 설득)
언어 차원	논리적	미학적	대화적
텍스트 초점	내용	형태	호소
TT의 초점	지시적 내용 전달	미학적 형태 전달	의도한 반응 유도
번역 방법	‘평이한 산문체’, 필요시 명시화	‘동일시’ 방법, ST 저자의 관점 채택	‘번안, 효과의 등가

<표 1>에서 알 수 있듯 정보적 텍스트는 새로운 소식, 지식, 정보, 주장, 견해, 감정 등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초점이 텍스트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ST의 개념과 내용을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표현적 텍스트는 창조적이고 미학적 표현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ST의 저자와 형태를 존중하는 번역이 요구된다. 작용적 텍스트의 경우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지 여부가 번역에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감안할 때 라이스가 지칭하는 성공적인 번역 방법이란 각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적절하거나 수용가능한 번역물을 생산하는 방법, 즉 텍스트 유형 별 번역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뉴스 텍스트는 텍스트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새로운 사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해설이나 의견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해설기사(예. 사설, 칼럼), 또는 두 가지 기능이 혼합된 기사로 분류된다(최인희 2001: 41; 이진호, 정완규 2009: 18-19). 이를 라이스가 제시한 텍스트 유형 별 기능적 특징과 연결해보면 뉴스 텍스트는 정보적 텍스트나 호소적 텍스트 또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텍스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⁶⁾ 그런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 정보적 텍스트와 작용적 텍스트는 표현적 텍스트와 달리 번역시 ST의 형태에 1차적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는 특정 뉴스

6) 라이스(1989: 105)는 다양한 종류의 개별 텍스트 중에서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텍스트는 거의 없으며 각각의 개별 텍스트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스트가 정보적 또는 작용적 텍스트 중 어느 유형에 속하더라도 뉴스 텍스트를 번역함에 있어 ST 형태의 보존 여부는 크게 중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뉴스 번역에서는 ST 형태의 충실성보다 ST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독자들에게 의도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등 TT 독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뉴스가 실제로 생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뉴스 텍스트에 대해 논의할 때 ST의 형태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벨(Bell 1991: 40-41)은 뉴스 텍스트는 상당 부분 해당 뉴스의 관련 기관이 생산한 문서(예. 보고서, 회의록, 연설문, 보도자료)나 다른 언론 기관이 보도한 기사를 바꿔 쓰거나 재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를 자신들의 기사에 삽입하는 끼워 넣기(embedding) 관행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즉 뉴스 텍스트 생산 활동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다른 텍스트를 독자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작성된 뉴스 텍스트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전달해야 하는 뉴스 번역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변형 작업이 더욱 복잡한 단계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 문화적 제약에 인터넷의 발달과 실시간 기사에 대한 요구 확대라는 시간적 제약까지 감안하면 뉴스를 번역할 때 ST의 형태를 보존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⁷⁾

실제로 뉴스 번역 실무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뉴스 번역에서는 ST 지위 약화가 불가피하고 때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뉴스 번역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ST의 형태와 내용이 반드시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또 이에 따라 ST는 새로운 독자의 기대와 맥락에 맞게 대대적으로 편집되고 개작되고 변형되며 이 과정에서 ST와는 전

7) 이와 관련 바스넷(2006: 6)은 전세계 독자들 사이에는 뉴스가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심층적인 설명보다는 간략한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등 뉴스 번역 시에는 다른 분야의 번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ST에 대한 대대적인 변형이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혀 다른 TT가 생산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Bassnett 2006: 6; Bielsa 2007: 11, 142, 144; Bielsa & Bassnett 2009: 63). 두르슬래어(Doorslaer 2010: 182-83)의 경우 뉴스 번역에서는 일반적인 번역 관계 속 ST의 존재와 지위가 해체된다고 설명했다. 즉 뉴스 생산에서는 다수의 ST가 사용되며 이들 ST는 TT 생산 과정에서 정보 처리, 변형, 재작성, 개작 등을 거치면서 그 수가 늘어나는데 이처럼 텍스트가 증식되는 과정에서 번역과 뉴스 텍스트 작성은 창조적인 동시에 재창조적인 하나의 과정 속에 통합되며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과정에서 두 가지 활동을 구분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언어 내적 번역이고 어떤 부분이 언어 간 번역 활동의 결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메시지를 해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는 강조한다. 즉 뉴스 번역에서는 ST와 TT를 구분하는 관점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헤르난데즈 나바로(Hernandez Navarro 2005) 역시 뉴스 번역의 결과 다른 대중을 위한 ‘뉴스’로 기능하는 새로운 텍스트가 창조된다고 보았다(Bielsa 2007: 143 재인용). 즉 뉴스 번역사는 여타 텍스트를 번역하는 번역사보다 텍스트에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과 관점을 감안할 때 번역학적 관점에서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의 준수 여부는 결과물이 TT 독자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변형되었는지, 또 텍스트 생산자가 그러한 수준으로 텍스트에 개입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2.2. 언론학적 관점의 뉴스 번역 규범

앞서 소개한 체스터만의 관점에 기반할 때 뉴스 번역에서의 기대 규범은 번역된 텍스트가 해당 텍스트와 유사한 유형 또는 장르, 즉 뉴스 텍스트의 담화 관습을 준수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스 텍스트의 담화 관습은 언론사의 기자, 에디터 등이 뉴스 텍스트 생산 시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기사 작성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기사 작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이자 기사 품질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언론학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사 작성 원칙은 크게 기사 가치 결정 요소와 기사 언어 사용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기사 작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범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언론학자들의 연구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기사 작성 원칙 중 뉴스 가치 결정 요소를 학자 별로 정리한 것으로 2개에서 11개까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표 3>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개념 정의는 황성근(2005)을 참고한 것이다.

<표 2>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뉴스 가치 결정 요소

김형진(2000)	시의성, 근접성, 지역성, 저명성, 공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장, 흥미성, 새로움과 놀라움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2003)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신기성, 갈등성
황성근(2005)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진귀성

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번역 규범은 하나의 공동체가 번역에 대해 공유하는 기본 개념과 가치이자 개별 상황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수행 지침이며, 이를 감안할 때 뉴스 번역에서는 언론학자보다 실무를 수행하는 기자, 에디터, 데스크 등이 좀 더 강력한 규범의 권위자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규범에 대한 자료는 각 언론사가 발간하는 보도지침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나오는 담화인데, 이러한 자료 역시 그 근간은 언론학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언론학자들을 좀 더 근본적인 규범의 권위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사의 보도지침이나 기자, 에디터, 데스크의 담화는 동일한 규범에 대한 것이라도 그 표현과 관련 상황이 매우 다양한 만큼 텍스트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형 별로 체계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언론학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원칙들이 이러한 체계적이고 단순한 유형을 제공해준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언론학자들의 이론을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뉴스 번역의 규범이자 텍스트 분석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처럼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이 뉴스 번역이 이루어지는 언론사라는 공동체 속 구성원들의 의식에 실재하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즉 번역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 작업 역시 필요하다. 하에 미국 뉴스 통신사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의 『기자과 에디터 지침(The Bloomberg Way: A Guide for Reporters and Editors)』 등 언론사의 보도 지침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산하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의 보도지수(The Reporting Index) 등 기자와 에디터들이 실제로 참고하는 보도 원칙, 그리고 언론사의 에디터, 데스크,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자료를 텍스트 분석 결과 기술에 첨가하여 분석 기준 및 결과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뒷받침하고자 했음을 밝혀둔다.

최재완(2006)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김성희(2007)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이상성
오정국(2013)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희귀성, 갈등성
멘처(Mencher 1984)	영향성, 흥미
이틀과 앤더슨(Itule & Anderson 1994)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갈등성
랜슨과 스티븐스(Lanson & Stephens 1994)	시의성, 근접성, 현재성, 저명성, 비중, 영향성, 효과성, 교육적 가치, 감정, 희귀성, 논란성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	시의성, 근접성, 현저/중요성, 흥미성, 희귀성, 갈등/논쟁성
미주리 그룹(Missouri Group 2005)	포괄적 기준: 관련성, 효과성, 흥미 세부적 기준: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희귀성, 갈등성

〈표 3〉 뉴스 가치 결정 요소의 개념 정의(황성근 2005: 71-76)

시의성	하나의 사건이 발생시점을 놓치지 않고 즉시에 보도되어야 한다.
근접성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뉴스거리가 된다.
저명성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한 사람일수록 뉴스거리가 된다.
영향성	공공의 생활과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수록 뉴스거리가 된다.
흥미성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이 뉴스거리가 된다.
진귀성	진귀하거나 상식을 뛰어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뉴스거리가 된다.

기사 작성 원칙 중 기사 언어 사용 원칙 역시 다양한 용어로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논리성 등의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표 4>와 <표 5>에서 볼 수 있듯 영어와 한국어 기사의 언어 사용 원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4〉 영어 뉴스의 기사 언어 사용 원칙

영어 뉴스	
멘처(1984)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며 짧은 문장
랜슨과 스티븐스(1994)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직접성
카폰(Cappon 1999)	명확성, 간결성, 정확성, 흥미성
페들러 외(Fedler <i>et al.</i> 2005)	정확한 단어, 명확하고 분명한 시간 표현을 사용하고 비속어, 상투적 표현, 과장되거나 의미 없는 수식이나 표현, 동어 반복 등은 피할 것
미주리 그룹(2005)	정확하고 명료하며 구체적으로 작성된 기사
키블(Keeble 2006)	짧고 명확한 문장이 가장 바람직하며 긴 종속절을 포함한 복잡한 문장은 피할 것

〈표 5〉 한국어 뉴스의 기사 언어 사용 원칙

한국어 뉴스	
이행원(1999)	정확성, 명확성, 설득력, 공정성
윤석홍, 김춘옥(2000)	정교함, 명료함, 구체성, 감각적 어필, 수사적 표현
김형진(2000)	정확, 명확, 간결/압축
이현구(2005)	정확성(정확한 내용과 올바른 표현), 객관성(과장, 감정 주의), 공정성(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급), 간결성(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수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그러려면 문장이 짧고 구성이 단순해야 함), 평이성(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써야 함, 한자와 한문, 외래어 줄이고 구어체로 써야 함), 친절성(사실, 용어, 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품위성(선정적 내용, 표현, 암시 및 비속어 사용 자제)
황성근(2005)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최재완(2006)	이해하기 쉽고 읽는 과정에서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는 문장,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장, 정확한 용어, 논리적이고 정확한 표현, 간단 명료한 문장, 신선하고 독특하고 활력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알맞은 길이와 구조를 가진 문장
김성희(2007)	정확한 어휘 사용, 전체 구조 결정 후 작성, 주어와 술어의 호응, 단문 위주의 단순하고 짧은 문장 사용, 번역투 및 동어 반복 주의
연국희(2011)	간단명료하고 말하듯이 쉬우며 논리적인 문장

TT 독자들은 번역된 뉴스를 번역물이라기보다 뉴스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학적 관점에서 뉴스 번역 과정을 규율하는 직무수행 규범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역사가 뉴스 전달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나 윤리적 원칙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이나 윤리적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권위 있는 언론학자, 유수의 언론 관련 단체나 언론사들이 제시하는 보도 원칙이다. 예를 들어 신문, 방송, 광고 등 매스컴 전 분야를 총망라해 1만 5,150개의 매스컴 용어 및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매스컴대사전(1993: 542-43)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뉴스 보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대체로 3가지, 즉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또는 균형성으로 요약된다. 정확성은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을 보도해야 함을, 객관성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성 또는 균형성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함을 나타낸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산하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가 2004년 개발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학 선행 연구에서 기사 품질 판단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보도지수(The Reporting Index)의 경우 양질의 기사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객관성, 신뢰성, 심층성 등을 꼽고 있다(이건호, 정완규 2009: 14-15; 박재영, 이완수 2010: 21, 30-32). 이러한 논의에 기반할 때 보도 원칙 역시 용어는 다양하지만 크게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및 균형성, 심층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언론학적 관점에서 뉴스 번역의 결과물을 규율하는 기대 규범은 기사 작성 원칙(기사 가치 결정 요소, 기사 언어 사용 원칙)으로, 뉴스 번역의 과정을 규율하는 직무수행 규범은 보도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원칙을 아울러 보도 관행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 6>은 본 연구가 도출한 언론학적 관점에서의 뉴스 번역 규범인 보도 관행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6〉 보도 관행: 기사 작성 원칙 및 보도 원칙

기사 작성 원칙		보도 원칙
뉴스 가치 결정 요소	기사 언어 사용 원칙	
시의성	정확성	정확성 및 신뢰성
근접성	명료성	객관성
저명성	간결성	공정성 및 균형성
영향성	논리성	심층성
흥미성		
진귀성		

세계화의 확산, 뉴 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미디어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각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고려할 때 보도 관행을 준수함으로써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늘날 언론사가 뉴스 텍스트 생산자에게 가장 요구하는 역할임을, 또 이렇게 생산된 텍스트가 언론사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 번역사가 생산한 텍스트가 번역학적 관점에서의 뉴스 번역 규범인 적극적인 텍스트 개입 및 변형은 물론 언론학적 관점에서의 뉴스 번역 규범인 보도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함으로써 번역물의 품질에 대한 단서를 가급적 다양하게 도출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뉴스 번역사들이 생산한 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이들이 번역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관찰된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이 앞서 살펴 본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 및 직무수행 규범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아울러 뉴스 번역 과정을 규율하는 직무수행 규범의 준수 여부는 연구자의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는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텍스트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터뷰는 또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언론 학자와 번역학자가 제시한 이론과 주장이 뉴스 번역이 이루어지는 언론사라는 공동체 속 구성원들의 의식에 실재하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즉 뉴스 번역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텍스트 분석의 기준 및 결과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3.1. 텍스트 분석

3.1.1. 텍스트 선정 방법

분석 대상 텍스트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4개의 언론사가 2013년 7월17일부터 8월28일까지 총 6주, 37일⁹⁾ 동안 생산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¹⁰⁾에 게재한 TT 총 148개로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를 절반씩 포함했다. ST의 경우 수집된 TT의 링크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출했으며 링크된 ST가 없을 경우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또는 구글 검색 기능을 통해 TT에 대응하는 ST를 추출했다. 텍스트 수집 대상 언론사는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매일경제신문, 뉴스핌, 조선일보 등으로 외국계 신문, 경제 신문, 온라인 신문, 종합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 유형을 반영하고자 했다.

3.1.2. 텍스트 분석 방법

이러한 방식으로 ST와 TT 쌍을 추출한 후에는 이들 텍스트를 뉴스 번역 전략 별로 분류했다. 본 연구가 텍스트 분석에 활용한 뉴스 번역 전략 범주는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 종합 등 다섯 가지로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표 7> 과 같다.¹¹⁾ 이들 다섯 가지 전략 범주는 뉴스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9) 언론사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사가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는 일요일은 제외했다.
 10) 오늘날 독자들의 신문기사 이용 경로 중에서는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29)를 감안했다.
 11) 본 연구가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 종합 등의 다섯 가지 번역 전략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류한 것은 번역사의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을 유형화함으로써 번역사의 개입 및 변형 양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지, 번역사들의 규범 충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뉴스 전략 범주 용어 및 개념 정의 가운데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첨가해 도출한 것이다.¹²⁾ 아울러 실제 뉴스 번역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허스티(Hursti 2001)와 감비에(Gambier 2006)의 용어 가운데 ST를 그대로 옮기는 어휘 차용과 패턴 전환, 어휘 차용 및 모사는 제외하고 여러 개의 ST를 변형하고 취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사로 만드는 종합이라는 범주를 추가했다.¹³⁾

족 여부와 빈도를 전략 별로 비교해 각 전략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 12)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의 네 가지 전략은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허스티(2001)와 감비에(2006)의 용어를 차용했다. 예를 들어 삭제는 후지이(Fujii 1988)의 메시지의 양 조절을, 첨가는 후지이(1988)의 메시지 보충과 비엘자와 바스넷(2009)의 중요한 배경 정보 첨가를 아우르며 대체는 첸(Chen 2009/2011), 루와 첸(Lu & Chen 2011)의 요약, 재구체화, 후지이(1988)의 메시지 변형(transforming message), 바니(2006)의 요약, 일반화, 대체, 비엘자와 바스넷(2009)의 제목 및 리드 변경, 정보 요약, 차이(Tsai 2005)의 일반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재구성의 경우 비엘자와 바스넷(2009)의 문단의 순서 변경, 차이(2005)의 개작 등을 포괄한다.
- 13) 삭제, 첨가, 대체, 재구성의 개념 정의는 허스티(2001)와 감비에(2006)를 따른 것이고 종합의 경우 'synthesis'라는 영문 용어는 선행 연구(Chen 2009/2011; Lu & Chen 2011; Bassnett 2011)에서 차용하되 개념 정의는 비엘자와 바스넷(2009: 101-102)의 설명을 따랐다. 비엘자와 바스넷은 'synthesis'라는 영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뉴스 텍스트 번역에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ST를 결합하는 활동(combination of different source texts)'도 자주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설명이 본 연구의 분석 틀로 활용된 '종합'이라는 전략의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은 2012년 10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한국어 ST와 영어 TT 총 99건을 분석한 홍정민의 연구(2014)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7〉 본 연구의 분석 틀로 활용한 다섯 가지 뉴스 번역 전략

전략 범주	개념 정의
삭제(deletion)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휘, 구문, 문단을 삭제하는 전략.
첨가(addition)	어휘, 구문, 문단 등의 층위에서 사실 정보, 배경 정보, 설명, 해설, 전망, 견해 등을 추가하는 전략.
대체(substitution)	어휘, 구문, 문단 등의 층위에서 정보나 구조를 바꾸는 전략. ST의 정보를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정보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세부정보를 덜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세부적으로 바꾸거나 정보를 압축하고 요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재구성(reorganization)	ST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어휘, 구문, 문단 등의 층위에서 정보를 옮기거나 재배치하는 전략.
종합(synthesis)	유사한 사안을 다루는 2개 이상의 ST를 동등한 비중으로 취합해 이들 ST를 아우르는 관점을 전달하거나 이들 ST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기사를 생산하는 전략.

이러한 뉴스 번역 전략의 범주를 기반으로 각 텍스트를 분류한¹⁴⁾ 뒤에는 번역사의 전략 별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이 앞서 파악한 번역학적 관점과 언론학적 관점의 뉴스 번역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3.2. 인터뷰

3.2.1. 인터뷰 대상 선정 방법

인터뷰의 경우 국내 10개 언론사에서 국제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

14) 분류 기준의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뉴스 번역 경력이 각각 3년과 5년 이상인 프리랜서 번역사 2명에게 전체 분석 대상 TT의 약 10%인 24개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가 각각 96%와 83%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신뢰도 계수가 90% 이상이면 모든 경우, 80%를 넘어서면 대부분의 경우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Neuendorf 2002: 143) 텍스트 분류 기준의 신뢰성은 확보됐다는 판단이다. 신뢰도 산정에는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계수 계산 공식, 즉 ‘2 x 코더 간 일치 사례 수/(코더 A가 코딩한 사례 수+ 코더 B가 코딩한 사례 수)’(Neuendorf 2002: 149 재인용)를 활용했다.

는 인하우스 및 프리랜서 번역사, 기자, 에디터, 데스크 총 14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4일부터 8월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됐으며 인터뷰 대상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뉴스 번역(이하 한→영 번역)과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뉴스 번역(이하 영→한 번역) 등 두 가지 언어 방향, 그리고 국내외 통신사, 신문사(종합 일간신문 및 경제신문), 인터넷 신문사(경제신문), 영자 신문사 등 다양한 매체 유형을 모두 반영해 텍스트 분석 대상과의 유사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3.2.2. 인터뷰 진행 방법

인터뷰는 1인당 1~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전에 계획된 질문을 중심으로 하되 면접 대상과 상황에 따라 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반구조화 방식(Richards 2009)으로 실시됐다. 질문 문항은 1) 국제 뉴스 생산 주체 2) 국제 뉴스 생산 과정 및 방식 3) 번역사의 업무 4) 번역사와 다른 국제 뉴스 생산 주체와의 의사소통 5) 번역사에 대한 인식 6) 번역사의 근로 조건 등 여섯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인터뷰 질문지는 <부록 1> 참고).¹⁵⁾ 조사의 투명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에 앞서 녹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에 동의한 5명의 면접 내용을 녹음했다. 면접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고 전달받았다. <표 8>은 인터뷰 응답자들의 소속 언론사, 매체 유형, 직책, 경력¹⁶⁾ 등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1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홍정민의 박사학위 논문(2014)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제시된 인터뷰 문항은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역할과 지위 전반을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질문을 통해 도출된 응답자들의 답변 가운데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 및 직무수행 규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만 발췌해 제시했음을 밝혀둔다.

16) 해당 정보는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2013년 6월~8월 기준이다.

〈표 8〉 인터뷰 응답자 프로필

인터뷰 응답자	소속 언론사	매체 유형	직책	경력
영 → 한 번역				
1	언론사 A	통신사	번역사 (프리랜서)	뉴스 번역 등 번역 경력 약 7년
2	언론사 B	통신사	기자/에디터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15년
3	언론사 B	통신사	기자/에디터	뉴스 번역 경력 약 11년
4	언론사 C	경제 신문사	기자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12년
5	언론사 D	인터넷 신문사	기자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5년
6	언론사 D	인터넷 신문사	번역사 (프리랜서)	뉴스 번역 등 번역 경력 약 7.5년
7	언론사 E	종합일간신문사	기자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14년
한 → 영 번역				
8	언론사 F	종합일간신문사	데스크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25년
9	언론사 G	종합일간신문사	번역사 (인하우스)	뉴스 번역 경력 약 8년 감수 경력 5년
10	언론사 H	경제 신문사	데스크/에디터	뉴스 번역 등 번역 경력 약 9년
11	언론사 H	경제 신문사	번역사 (인하우스)	뉴스 번역 경력 약 1년
12	언론사 H	경제 신문사	번역사 (인하우스)	뉴스 번역 경력 약 9.5개월
13	언론사 I	경제 신문사	데스크/에디터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20년
14	언론사 J	영자 신문사	데스크	취재 및 뉴스 번역 경력 약 18년

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각 전략 별로 소개한다. 각 예문에서 ST와 TT 간 차이, 즉 텍스트 개입 및 변형이 발생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처리했고 ST의 특정 부분과 대응하는 TT의 부분은 아포스트로피(')로 표시했다. 말 줄임표(...)는 생략된 부분을 나타낸다.

〈표 9〉는 번역사들의 개입 및 변형 양상이 번역학적 관점과 언론학적 관점의 뉴스 번역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번역 전략 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나듯 번역사들은 첨가, 대체, 재구성에서는 전반적으로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삭제, 종합에서는 뉴스 번역의 규범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규범 충족 여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던 대체와 재구성, 삭제와 종합 전략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9〉 번역 전략 별 뉴스 번역 규범 충족 여부

전략	텍스트 개입 양상
삭제	기사 언어 제고
	뉴스 가치 강화
	보도 원칙 미충족
첨가	기사 언어 제고 및 뉴스 가치 강화
	보도 원칙 충족
대체	기사 언어 제고
	뉴스 가치 강화
	보도 원칙 충족
재구성	기사 언어 제고
	뉴스 가치 강화 및 보도 원칙 충족
종합	기사 언어 제고
	뉴스 가치 강화 및 보도 원칙 충족
	ST 형태의 소극적 변형

4.1. 뉴스 번역 규범 충족 사례

번역사들은 텍스트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대체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ST의 표현이나 정보 배치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텍스트를 변형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기사 언어가 향상되고 다양한 측면의 뉴스 가치가 강화됐으며 보도 원칙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사가 생산됐다. 이는 번역사들이 ST의 적극적인 변형 및 개입과 보도 관행 충족이라는 번역학적 관점과 언론학적 관점의 뉴스 번역 규범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1.1. 대체

번역사들 사이에는 대체를 통해 보도 원칙 중 하나인 기사의 정확성 및 신

뢰성을 제고하는 양상이 자주 발견되었다. 다음의 TT1은 ST1 작성 시 활용되었던 보도자료를 참고해 일부 표현을 대체한 사례로 번역사들이 ST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가급적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TT에 반영하고 있음을, 좀 더 근본적으로는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텍스트 생산에 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체스터만의 직무 수행 규범 가운데 번역사가 자신의 번역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인 책무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번역사들이 생산하는 결과물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T1은 2013년 8월6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경제의 핵심, 창의인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Five-Jump’ 전략 추진’ 제하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로 TT1은 일부 구문 번역 시 ST1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보도자료의 구문을 사용한 경우로 파악된다.¹⁷⁾

우선 ST1의 1)은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날의 교육, 고용 환경’이나 TT1에 서는 ‘1) 학벌, 경쟁위주의 교육, 고용 환경’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해당 보도 자료 1페이지의 ‘정부는 학벌·경쟁위주의 교육·채용 환경 등으로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라는 구문을 참고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긴 구문을 살펴볼 경우 번역사가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했다는 사실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3), 4)의 경우 그대로 번역하면 ‘정부는 또 “지난 40년간 한국이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공격적 경제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성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불경기로 노동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구직자들 사이에 안정적 직장을 찾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은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가 된다. 하지만 TT1은 이를 ‘3) 정부는 지난 40년간 추진해 온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 정부는 또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에 따라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

17) TT1에 사용된 일부 구문이 ST1과 차이가 있거나 ST1에 비해 구체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관련 보도자료(출처: 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578)를 찾을 수 있었고, 보도자료 구문에 사용된 구문이 TT1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보도자료는 <부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은 학과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로 옮겨는데 이 역시 보도자료에 사용된 구문과 유사하다. 즉 보도자료 2페이지의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추격형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 현장에서 창의인재 양성은 곤란하며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에 따라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과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으며, 우수인재의 글로벌 유·출입도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구문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0> 대체를 통한 보도 원칙 충족 사례

ST1	South Korea Sees Creativity as Key to Growth(WSJ, 2013년 8월8일, Economy & Business)	TT1	한국 정부, 창의적인 인재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WSJ 한국어판, 2013년 8월9일, 아시아)
<p>...</p> <p>“The government realized 1) the education and hiring environment of today has its limitation in encouraging creative talents,” read 2) a statemen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Wednesday.</p> <p>3) It also said the current aggressive economic model, which allowed the country to accomplish rapid development for the last four decades, faces limitations and a shift in growth policy is necessary.</p> <p>...</p> <p>4) “The sluggish economy has dampened the job market, which in turn fans the trend among job seekers to look for safe jobs,” read the statement. “University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on improving test scores.”</p>	<p>...</p> <p>수요일(7일), 2)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정부는 1) 학벌, 경쟁위주의 교육, 고용 환경 등으로는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p> <p>3) 정부는지난 40년간 추진해온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p> <p>4) 정부는 또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에 따라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은 학과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표 11>은 TT1의 1), 3), 4)를 이에 상응하는 ST1의 구문 및 보도자료의

구문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TT1에 사용된 표현들이 ST1보다는 보도자료와 좀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ST1의 구문 뒤에 괄호로 연구자의 대응역을 함께 제시했으며 TT1과 보도자료 간 유사한 표현은 굵은 글씨와 밑줄을 함께 사용해 강조했다.

〈표 11〉 ST1·TT1·보도자료의 표현 비교

ST1	TT1	보도자료
the education and hiring environment of today(오늘날의 교육, 고용 환경)	정부는 학벌, 경쟁위주의 교육, 고용 환경 등으로는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벌·경쟁위주의 교육·채용 환경 등으로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1페이지)
It also said the current aggressive economic model, which allowed the country to accomplish rapid development for the last four decades, faces limitations and a shift in growth policy is necessary. (정부는 또 “지난 40년간 한국이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공격적 경제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성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고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추격형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2페이지)
“The sluggish economy has dampened the job market, which in turn fans the trend among job seekers to look for safe jobs,” read the statement. “University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on improving test scores.”(보도자료는 “불경기로 노동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구직자들 사이에 안정적 직장을 찾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은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에 따라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면서 대학생들은 학과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에 따라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과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으며,(2페이지)

그 밖에 번역된 기사의 출처를 보여주는 2)를 통해서도 번역사가 ST1을 수동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해당 보도자료를 함께 참고했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ST1은 출처를 ‘a statemen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즉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성명서’라고만 밝힌 반면, TT1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이들 세 개 외에 다른 정부 부처도 이번 정책 추진 및 발표에 관여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보도 자료의 관계부처 문이처 목록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8개 정부 부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TT1이 ST1 뿐 아니라 해당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TT1은 또 이러한 개입 및 변형을 통해 ST1보다 출처를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도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자와 에디터들이 실제로 참고하는 각 언론 기관의 보도 지침서 가운데 미국 뉴스 통신사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의 『기자과 에디터 지침(The Bloomberg Way: A Guide for Reporters and Editors)』은 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보 취득의 경로와 출처를 가급적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밝힐 것을 규정하고 있다(Winkler 2012: 4, 25, 8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ST1에만 의존하지 않고 ST1이 활용한 자료를 직접 참고해 정보를 대체하는 양상은 보도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전달하려는 번역사들의 책임 의식과 적극성을 반영하며 해당 출처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은 출처 명시에 대한 보도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로 이러한 개입을 통해 번역사는 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인하우스 번역사인 응답자 9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원문을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기도 하고 필요하거나 있을 경우 보도자료와 같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도 한다”고 말해 번역사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 ST와 ST 작성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1.2. 재구성

재구성에서도 번역사들 사이에는 ST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사 언어, 뉴스 가치 결정 요소 등의 기사 작성 원칙과 보도 원칙 등 보도 관행에 부응하는 기사를 생산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다음 예문은 재구성을 통해 특정 정보가 부각되면서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등의 뉴스 가치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객관성 등 보도 원칙도 충족된 사례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 ST1은 뉴욕증시 마감 기사로 뉴욕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으로 양적 완화 종료 우려 완화(1))를 들고 있다. 반면 TT1은 ST1 맨 아래 쪽에 있던 애플 관련 정보(2))를 리드 부분으로 이동시켜 이를 뉴욕 증시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인터뷰에서 뉴스 번역 시 자주 사용하는 전략과 관련해 응답자 1은 “핵심 정보가 좀 더 부각되도록 단락 순서 변경하기도 한다”고 말했고 응답자 6 역시 “중요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재구성을 한다”고 답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입은 가장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끌만한 정보를 기사의 앞부분으로 옮겨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당시 양적 완화 종료와 관련된 소식들이 새롭게 부상한 것이라기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시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재료였음을 감안할 때 그 날의 시황에서 특별히 발생한 소식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식상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TT1은 친숙하고 유명한 기업인 ‘애플’과 관련된 정보를 기사 전면에서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했을 수 있다. 또 해당 기사의 독자 가운데는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시장 투자자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양적 완화라는 거시적인 정보보다 애플, 기술주 등 투자자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의 주가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사의 개입 및 변형은 뉴스 가치 중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기사의 품질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사는 또 ST1이 뉴욕 증시 상승의 원인으로 제시한 ‘양적완화 종료 시

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추상적이고 심리적이며 따라서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임을 감안해 '애플과 기술주의 상승'이라는 분명히 발생한 사실 정보를 원인으로 부각시키고자 했을 수 있으며 이는 보도 원칙 중 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로 판단된다.

속보성이 관건인 시황 기사를 좀 더 신속하게 번역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이 선택되었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 완화 종료 우려와 관련된 소식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그 날의 시황에서 특별히 발생한 소식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독자들이 기사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 날 시황에서 양적 완화 종료 우려가 완화된 이유, 즉 테니스 록하트 애플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까지 모두 번역해야 하며 그만큼 텍스트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TTI과 같이 당일 증시 분위기를 주도한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할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와 이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기사 생산이 가능하며 기사 자체도 좀 더 간결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뉴스 가치의 시의성과 기사 언어의 간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역시 기사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표 12> 재구성을 통한 뉴스 가치 강화 및 보도 원칙 충족 사례

<p>ST1. 뉴욕증시, 미 QE 종료 우려 완화에 상승 마감(매일경제, 2013년 8월14일, 국제)</p>	<p>TT1. US stocks end higher; Apple boost tech stock rally (매일경제 영문, 2013년 8월14일, Market)</p>
<p>뉴욕증시가 1)양적완화 종료 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상승 마감했다.</p> <p>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1.33포인트(0.20%) 오른 15451.0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69포인트(0.28%) 높은 1694.16, 나스닥 종합지수는 14.49포인트(0.39%) 오른 3684.44를 각각 기록했다.</p>	<p>US stocks closed higher Tuesday, with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and the S&P 500 index halting a two-session slide, 2)'as a rally in Apple helped boost technology shares.</p> <p>The Dow industrials gained 31.33 points, or 0.2 percent, at 15451.01. The S&P 500 index rose 4.69 points, or 0.3 percent, to 1694.16. The Nasdaq Composite added 14.49 points, or 0.4 percent, to 3684.44.</p>

<p>이날 데니스 록하트 애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p> <p>록하트 총재는 “...”고 밝혔다.</p> <p>이 발언은 양적완화 축소 시작 시기가 시장이 예측하는 9월보다 늦은 10월이나 12월 FOMC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p> <p>...</p> <p>2) 애플의 주가는 4.75% 급등했다.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이 트위터를 통해 애플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애플 지분을 대거 취득했다고 밝힌 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p>	
--	--

4.2. 뉴스 번역 규범 미충족 사례

반면 삭제, 첨가, 종합 등의 전략 사례에서는 뉴스 번역 규범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삭제에서는 일부 번역사들이 보도 원칙 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없애면서 기사의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 심층성 등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종합의 경우 번역사들이 언론사에서 원하는 만큼 ST의 형태에 과감하게 개입하고 변형을 가하지 못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4.2.1. 삭제

다음 예문은 삭제로 인해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정확성, 심층성 등이 약화되면서 보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가 생산된 사례다.

ST1은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해외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WSJ의 2013년 8월21일자 기사로 새로운 정보로서 큰 의미는 없지만 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장들이 삭제되었다. 예를 들어, ST1의 ‘2)The Punjab Government didn't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편집 정부는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와 ‘4)Efforts to reach

Russian officials were unsuccessful(MS 러시아사업부 관계자들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기사가 취재원 2명(1) One tipster, 3) Another tipster)이 제공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그 밖의 다양한 취재원(The Punjab Government, Russian officials)에 대한 접촉을 통해 정보의 진위 확인 노력도 기울였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이다. 이 두 개 문장은 또 기사의 보도 내용이 제보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자사가 그 밖의 취재원들을 통해 다각도로 확인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보도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블룸버그 뉴스의 『기자과 에디터 지침』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보도할 때는 반드시 보도 대상에 접촉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보도 대상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은 모두 반드시 기사에 명시해야 한다(Winkler 2012: 25, 69, 85).¹⁸⁾ 또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한 PEJ의 보도지수는 객관성, 신뢰성, 심층성 등을 갖춘 양질의 기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취재원의 수, 이해 당사자의 수, 관점의 다양성¹⁹⁾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이건호, 정완규 2009, 14-15; 박재영, 이완수 2010, 21, 30-32). 이는 다수의 취재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해당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2)와 4)가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정확성, 심층성 등에

18) 이 지침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할 때는 반드시 보도 대상 개인 또는 기관에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명시해야 하며 ‘노코멘트(no comment)’, ‘코멘트를 거부했다(declined to comment)’ 등 보도 대상 개인 또는 기관의 대응을 보여주는 내용은 모두 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Winkler 2012: 25, 69, 85).

19) 박재영과 이완수(2010: 21, 30-32)가 세부적으로 정리한 이들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투명 취재원의 수: 4개 이상(개인 투명 취재원, 단체 투명 취재원, 자료 투명 취재원, 즉 사람의 성과 이름,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자료나 문건의 이름 등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2)이해 당사자의 수: 4개 이상(이해관계가 상이한 주체(different interested groups)를 의미하며 특정 이해 당사자의 발언 등을 명확히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한 경우도 이해당사자로 간주) 3)관점의 다양성: 복합적 관점의 기사(취재원이나 이해 당사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기사에 나타난 주요 견해가 단일한지 아닌지를 의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TT1에서는 2)와 4)가 전부 삭제되면서 이러한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모두 생략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개입이 특정한 기준에 따른 의식적인 선택임을 시사한다. 즉 번역사는 분량을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취재 노력이 결국 보도 내용의 진위 확인이나 새로운 정보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사 언어의 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번역학적 관점에서의 뉴스 번역 규범에 기반할 때 이는 ST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변형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뷰 응답 가운데 번역사들 사이에 보도 관행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책임 의식 및 적극성이 부족함을 시사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TT1의 번역사가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정확성, 심층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취재원 및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 즉 보도 원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뉴스 전달자로서의 책임이나 윤리적 측면을 규율하는 보도 원칙보다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둔 기사 언어 사용 원칙을 좀 더 중시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는 결과일 수 있다.

언론사 B에서 번역사들의 번역물을 편집하는 에디터 겸 기자인 응답자 2는 번역사들이 생산한 기사의 품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들이 맞춤법이나 표현 상 오류 또는 실수 외에도 이미 다른 번역사가 작성해 출고된 기사를 다시 번역하거나 다른 기사 내용 일부를 배경 설명으로 사용하면서 오류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첨가하거나 최근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등 모니터와 의사소통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전에 나간 기사에 새로운 사실 정보를 덧붙여 기사를 업데이트할 때는 해당 정보를 리드²⁰⁾ 부분에 위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사 아래 부분에 단순히 첨가하거나, 필요 없는 기사나 기사 속 내용까지 일일이 번역해 기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 그래서 내용

20) 신문, 잡지, 통신 또는 방송 등의 보도기사에서 그 내용의 정수(精髓)를 담은 첫 머리의 도입구절(opening paragraph) 또는 기사의 클라이맥스 구절(한국언론진흥재단 1993: 351). 리드 한 줄만 써도 전체 기사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윤석홍, 김춘우 2000: 189).

이 길기만 하고 다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한 기사에 쓴 배경 설명을 다른 기사에도 그대로 옮겨 붙여서 한 기사에 잘못된 수치가 들어가면 다른 기사에도 줄줄이 그 틀린 수치가 붙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번역사의 부주의와 소극적 태도는 물론 기사 언어 사용 원칙, 뉴스 가치 판단 기준 등 보도 관행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번역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언론사 J의 인하우스 번역사인 응답자 12는 역피라미드, 스트레이트 등 기사 작성 원칙과 관련한 용어들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스트레이트 기사의 의미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고 답변해 기사 작성 원칙 등 보도 관행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온전한 지식이 부재함을 보여줬다.

〈표 13〉 삭제로 인한 보도 원칙 미충족 사례: 번역사 번역 텍스트

ST1.	Microsoft Bribe Probe Reaches Into Pakistan, Russia Deals(WSJ, 2013년 8월21일, BUSINESS)	TT1.	미 당국, MS 뇌물 혐의 조사 확대 (WSJ 한국어판, 2013년 8월22일, Frontpage)
...	<p>1) One tipster emailed Microsoft in January alleging executives at Microsoft’s Pakistan operations paid for a December 2009 trip for a Punjab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and his wife to win a three-year contract to supply the government with its Microsoft Office software, according to documents review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2) The Punjab Government didn’t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p> <p>3) Another tipster mailed allegations to Microsoft concerning its Russian branch in March, said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p>	...	<p>1) 제보자 중 한 명은 올 1월 MS 파키스탄사업부 경영진이 MS 소프트웨어를 파키스탄 정부에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2009년 12월 편잡지역 정부 관리와 부인의 여행경비를 대주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MS에 보냈다. MS를 대신해 여행 컨설팅업체가 예약을 했다는 문제의 여행경비에는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과 럭셔리 호텔 숙박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MS는 3개월 후 900만 달러 가치의 해당 계약을 따냈다.</p> <p>3) 또 다른 제보자는 올 3월 MS 러시아사업부와 관련한 내용을 MS측에 메일로 보냈다. MS 리셀러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영 통신회사 경영진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주장이었다.</p>

3) Efforts to reach Russian officials were unsuccessful.
--	-----

4.2.2. 종합

2개 이상의 ST를 취합하는 종합 전략에서도 번역사들은 각 ST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기사 언어 사용 원칙 중 간결성과 명료성을 약화시키는 등 뉴스 번역의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ST1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나치 헌법 관련 발언에 대한 해외 반응 및 이에 따른 발언 철회 소식, ST1'는 일본 내 반응과 발언 철회 소식을 각각 보도한 기사로 TT1은 각각의 ST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기사 속에 종합해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 ST1과 ST1'에 사용된 표현과 구조는 TT1로 취합된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14〉 종합에서 ST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사례

ST1. 유대인 단체·獨언론 “아소(일본 부총리), 당신은 나치 만행을 잊었나”(조선일보, 2013년 8월2일, 국제)	TT1. Japan's Deputy PM Forced to Retract Nazi Comment(조선일보 영문, 2013년 8월2일, World)
1)“나치로부터 헌법 개정 수법을 배워야 한다”는 망언을 한 아소 다로(麻生太郎·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 2)아소 부총리는 1일 “나치 정권에 관한 발언이 나의 진의와는 달리 오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나치 정권의 예를 든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역사에 무지한 부끄러운 발언” “헌법 개정의 속마음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세계적 유대인 인권단체인 미국 사이먼비젠탈센터는 “나치가 전 세	1)' 7)'Japanese Deputy Prime Minister Taro Aso on Thursday retracted remarks made a day earlier that Japan should learn from Nazi leader Adolf Hitler in changing its pacifist constitution without arousing public concern. The remarks were met by a storm of international criticism. 4)', 7)' “Germany's Weimar constitution was changed before anyone realized... Why don't we learn from that technique?” Aso had been quoted as saying. 2)' On Thursday, he said he regretted the

<p>계를 혼돈에 몰아넣고 인류를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빠뜨린 제2차 대전을 초래한 사실을 망각했는가"라고 비판했다.</p> <p>3) 각국 정부와 언론도 아소 망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아소 부총리가 역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 일본 국익을 해쳤다"고 평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아소 스스로 어리석음을 폭로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과거 전쟁에 대한 아베 정권의 몰염치한 기조와 해석 때문에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 끊임없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1일 "일본 지도자가 나치 수법으로 헌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일본이 어디로 향하려 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p> <p>4)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망언 내용은 "바이마르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는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였다. ...</p> <p>5) 유대인 인권단체인 미국 사이먼비젠탈 센터는 지난 30일 "세계가 (나치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권력자가 나치처럼 행하는 안 된다는 것뿐"이라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p>	<p>"misunderstanding." "I invited misunderstanding as a result and I would like to withdraw the statement in which I cited the Nazi regime as an example," he said.</p> <p>2)', 8)' He faces mounting calls from within Japan to resign, with critics accusing him of ignorance and saying his comments reveal the true face of the Abe administration.</p> <p>6)'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on Wednesday said people should be asking Aso what he really meant. But as international criticism mounted and the Simon Wiesenthal Center demanded clarification, Suga indirectly criticized Aso, saying during a press conference Thursda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not perceive the Nazi Germany in a positive light."</p> <p>5)' Rabbi Abraham Cooper of the Simon Wiesenthal Center said in a statement, "The only lessons on governance that the world should draw from the Nazi Third Reich is how those in positions of power should not behave."</p> <p>3)'Foreign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media also lambasted Aso's comments. The Washington Post said they exposed his "lack of understanding" of history, which "hurt Japan's national interest."</p> <p>China's official Global Times said Aso voluntarily exposed his foolishness. Reuters said the Abe administration's "push to take a less apologetic tone in</p>
<p>ST1'. 日서도 "나치 妄言 부끄럽다, 아소(일본 부총리) 몰러나라" 목소리 (조선일보, 2013년 8월2일, 국제)</p>	
<p>6)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31일만 해도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의 나치 관련 망언에 대해 "본인에게 진의를 물어볼</p>	

<p>문제”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그는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은 나치 정권을 절대 긍정하지 않는다”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p>	<p>Japan’s diplomacy and his interpretations of wartime history have attracted repeated criticism from countries such as the two Koreas and China, which suffered under harsh Japanese rule before and during the war.”</p>
<p>7) 아소 부총리는 1일 일간 발언 철회로 파문 수습에 나섰다. “나치로부터 헌법 개정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 것이다. ... 8)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소의 발언은 자민당 헌법 개정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p>	<p>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Hong Lei on Wednesday warned that Japanese politicians saying publicly that they intend to use Nazi tactics in revising its constitution “can only trigger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p>

번역사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개입 및 변형이 언론사 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뉴스 번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인터뷰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앞서 삭제 전략에서 소개한 에디터 겸 기자 응답자 2의 답변은 번역사들이 ST 형태 변형에 소극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번역해 기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에디터 또는 에디터로 대변되는 언론사의 불만을 시사한다. 이는 번역사들이 ST의 형태를 충실히 보존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언론사 내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가 텍스트 분석 기준의 하나로 도출한 번역학자들의 뉴스 번역 규범이 언론사라는 공동체 속 구성원들의 의식에 실재하며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언론사의 인하우스 뉴스 번역사로 2년 정도 근무하다 국제부 기자로 직업을 바꾼 응답자 5는 “기자로써 기사를 써보니 오히려 다양한 외신을 활용하거나 원문에서 벗어나야 좋은 기사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답변 역시 뉴스 번역에서는 ST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입 및 변형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번역사들이 이처럼 ST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이들이 이러

한 뉴스 번역의 규범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이에 부응하는 기사를 생산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언론사가 번역사들에게 부여한 텍스트 개입 재량과 권한이 제한적이거나²¹⁾ 번역사들 사이에 ST에 대한 충실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에서 인하우스 번역사인 응답자 1과 응답자 12는 각각 “전문 번역이 관행”, “[삭제, 재구성, 종합의 경우에는] 권한이 없어서 일단 원문 그대로 간다”고 답했는데 이는 언론사 차원에서 번역사들에게 ST에 대한 과감한 개입 및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번역사들이 뉴스 번역의 규범에 부합하는 기사를 생산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5의 경우 번역사로 뉴스를 번역할 때는 “기사의 순서나 구성을 자주 바꾸지 않았다. ST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구성했을 때는 어떤 이유나 의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고 따라서 구성을 바꾸면 내용이나 의미,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함으로써 언론사가 번역사에게 ST에 대한 개입 및 변형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더라도 번역사 스스로가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행 연구와 인터뷰 결과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와 같이 뉴스 번역에서는 ST 형태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않으며 오히려 목표 독자의 기대와 수요에 맞게 과감하게 변형하는 것이 실제 규범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ST에 대한 번역사들의 소극적 개입 및 변형 양상은 이들의 뉴스 번역 규범 준수 여부, 나아가 이들이 생산한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1) 텍스트 분석 결과, 삭제 전략에서는 번역사의 개입 및 변형이 대체로 구문, 문장, 문단 단위로 나타나는 등 2개 이상의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전략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삭제 전략에서는 종합 전략과 동일한 선상에서 재량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량보다는 삭제되는 정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규범이 충족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했음을 밝혀둔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번역학과 언론학의 관점에서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을 파악한 뒤 번역사들의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이 이러한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들이 생산한 번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단서를 도출해보았다. 이를 위해 총 148쌍의 ST와 TT를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국내 10개 언론사 인하우스 및 프리랜서 번역사, 기자, 에디터, 데스크 등 응답자 총 14명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정교성과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를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제와 연결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스 번역 시 국내 언론사 번역사의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과 이러한 양상의 뉴스 번역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 번역사들은 대체와 재구성에서는 전반적으로 뉴스 번역의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에 개입하고 변형을 가한 반면 삭제, 종합 등의 전략에서는 뉴스 번역의 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우선 대체 전략에서 번역사들은 어휘에서 문단 이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에서 ST의 표현, 수식어구, 사실 정보, 배경 정보, 설명, 해설 등을 변경함으로써 기사 언어의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논리성을 높이고 시의성, 흥미성 등의 뉴스 가치를 강화하거나 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번역사들은 재구성 전략에서도 ST의 표현이나 구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정보의 순서나 위치를 변경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논리성, 명료성과 같은 기사 언어와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등의 뉴스 가치를 제고하고 보도 원칙 중 정확성 및 신뢰성, 객관성, 심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개입 및 변형 양상은 번역사들이 기사 작성 원칙과 보도 원칙 등 보도 관행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개입하고

변형을 가하고 있음을, 나아가 이들이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삭제, 종합 등의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에서는 뉴스 번역의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삭제 전략의 경우 일부 번역사 번역 텍스트에서 중요한 출처 정보가 사라지면서 정확성 및 신뢰성, 객관성, 심층성 등 보도 원칙에 어긋나는 기사가 생산된 사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양상은 번역사들 사이에 직무수행 규범인 보도 원칙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하거나 직업윤리 및 책임 의식이 부재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에서 번역사들은 ST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등 언론사가 요구하는 만큼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언론사가 ST에 대한 개입 및 변형과 관련해 번역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재량만 부여하거나 번역사가 ST의 형태 보존에 매우 큰 가치를 두는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뉴스 번역에서는 ST의 형태를 목표 독자의 기대와 수요에 맞게 과감하게 변형하는 것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번역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ST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인 개입 및 변형 양상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이들이 생산한 결과물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는 뉴스 번역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면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번역사도 있는 반면 일부 번역사들 사이에는 여전히 뉴스 번역의 규범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들이 생산하는 결과물의 품질 역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 이러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기반,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들이 생산한 번역물의 품질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도 관행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뉴스 번역의 기대 규범과 직무수행 규범인 보도 관행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제공된다면 번역사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규범에 맞는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번역물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앞서 보도 관

행을 좀 더 충분히 숙지하려는 번역사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 연구가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정리해 기사 품질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보도 관행(<표 6> 참고)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²²⁾.

양질의 기사 생산이 언론사의 독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은 비단 번역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경쟁력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번역사와 언론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국내 뉴스 번역사가 생산한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텍스트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 본 연구는 연구 주제 및 방법 측면에서 번역학, 번역 실무 및 교육은 물론 언론학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오늘날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뉴스 번역물의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드문 시도로서 뉴스 번역, 번역물 품질 평가 등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뉴스 번역에 관심이 있는 번역사와 시장에서 원하는 번역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기관에는 실무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번역 결과물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번역학과

22)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도 관행은 기자들이 실제로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국내외 언론사의 보도 지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 기술에서 본 연구가 소개한 블룸버그 뉴스의 『기자과 에디터 지침』(2012)은 물론 *Associated Press*의 『기사 작성 지침(*The Associated Press guide to news writing*)』(1999),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스타일 및 언어 사용 매뉴얼(*The New York Times Manual of Style and Usage: The Official Style Guide Used by the Writers and Editors of the World's Most Authoritative Newspaper*)』(2002) 등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이 발간한 스타일 및 보도 지침은 특히 한→영 번역을 수행하는 뉴스 번역사들에게 영어권 보도 관행에 맞는 기사 생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언론학의 이론을 접목함으로써 두 학문 간 다학제적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인터뷰 대상에 번역사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에디터, 데스크, 기자까지 포함하는 등 국제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번역사들이 생산한 텍스트만 분석하거나 번역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번역학 내 연구 방법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는데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기간 및 범위가 제한적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번역학적 관점과 언론학적 관점의 뉴스 번역 규범이 뉴스 번역이라는 복잡한 현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번역 규범을 모두 아우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좀 더 심도 있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뉴스 번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번역 규범을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인터뷰 결과를 통해 보완하긴 했지만 텍스트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의 특성 상 번역사의 개입에 따른 효과와 기사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에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개입의 효과나 기사의 품질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독자나 에디터, 데스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실험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뉴스 번역사의 텍스트 개입 및 변형 양상이 뉴스 번역 규범을 충족시키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번역물의 품질에 대한 단서를 이끌어내는 것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번역물의 품질 연구가 더욱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번역 규범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친 원인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 간 뉴스 번역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연구 대상을 다른 언어 조합의 뉴스 번역으로 확대할 경우 뉴스 번역 결과물 품질에 대한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좀 더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성희 (2007)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김형진 (2000) 『현장 취재보도론』, 부산: 금샘미디어.
- 박재영, 이원수. (2010) 『뉴스평가지수의 개발과 적용』,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연국희 (2011) 『기자작성 워크북』, 서울: 룩스문디.
-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2003) 『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나남출판.
- 오정국 (2013) 『미디어 글쓰기: 현장 취재에서 기사 작성까지』, 서울: 아시아.
- 윤석홍, 김춘옥 (2000) 『신문과 방송, 취재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이건호, 정완규 (2009) 「취재 영역 및 보도 형태별 뉴스 심층성 연구 -한 미 신문 1면 기사에 나타난 투명 취재원, 복합 관점, 이해 당사자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21: 5-48.
- 이행원 (1999) 『취재보도의 실제』, 서울: 나남출판.
- 이현구 (2005)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사작성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연일, 남원준 (2006)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최인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초기화면(front page) 뉴스기사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재완 (2006) 『신문,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신문 글쓰기의 이론과 훈련』, 개정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언론진흥재단 (1993) 『매스컴대사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201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홍정민 (2014) 「한영 뉴스 번역사의 텍스트 개입 양상에 관한 고찰」, 『번역학 연구』 15(1): 365-413.
- 홍정민 (2014)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역할과 지위 연구 -영어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성근 (2005) 『미디어 글쓰기』, 서울: 박이정.
- Bani, Sara (2006) 'An Analysis of Press Translation Process' in Kyle Conway and Susan Bassnett (eds.),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35-46.

- Bassnett, Susan (2006) 'Introduction' in Kyle Conway and Susan Bassnett (eds.),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5-8.
- _____ (2011) *Reflections on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ell, Allan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UK & Cambridge MA: Blackwell.
- Bielsa, Esperanca (2007) 'Translation in Global News Agencies', *Target* 19(1): 135-55.
-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ppon, Rene. J (1999) *The Associated Press Guide to News Writing*, 3th ed, New York: Prentice Hall.
- Chen, Ya-mei (2009) 'Quotation as a Key to the Investigation of Ideological Manipulation in News Trans-Editing in the Taiwanese Press', *TTR* 22(2): 203-38.
- Chen, Ya-mei (2011) 'The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 119-44.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Doorslaer, Luc van (2010) 'Journalism and Translation' in Luc van Doorslaer and Yves Gambi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80-84.
- Fedler, Fred, John Bender, Lucinda Davenport and Michael Drager (2005) *Reporting for the Media*, 8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ujii, Aki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XXXIII(1): 32-37.
- Gambier, Yves (2006)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News' in Kyle Conway and Susan Bassnett (eds.), *Translation in Global New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23 June 2006*,

- Warwick working papers*, Coventry, UK: University of Warwick Centre for Translation and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9-21.
- Hernández Navarro, Maria José. (2005) 'La traducción de los géneros periodísticos', Cortés Zaborras and Hernández Navarro (2005) 89 - 133.
- Holsti, Ole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 Itule, Bruce D. and Douglas A. Anderson (1994) *News Writing and Reporting for Today's Media*, 3rd ed, New York: McGraw-Hill.
- Keeble, Richard (2006) *The Newspapers Handbook*, 4th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anson, Gerald and Mitchell Stephens (1994) *Writing and Reporting the News*,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 Guang-hui and Ya-mei Chen (2011) 'The Mediation of Reader Involvement in Soft News Transediting', *Translation & Interpreting* 3(2): 48-66.
- Mencher, Melvin (1984) *News Reporting and Writing*, 3rd ed, Dubuque, Iowa: W.C. Brown.
- Munday, Jerem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uendorf, Kimberly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Reiss, Katharina (1989) '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trans. Andrew Chesterman, *Lebende Sprachen* 22(3): 105-15.
- Richards, Keith (2009) 'nterviews' in Juanita Heigham and Robert Croker (eds.), *Qualitative Research in Applied Linguistics: A Practical Introduc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82-99.
- Shoemaker, Pamela J. and Stephen D.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iegal, Allan M. and William G. Connolly (2002) *The New York Times Manual of Style and Usage,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The Official*

Style Guide Used by the Writers and Editors of the World's Most Authoritative Newspaper, CA: Three Rivers Press.

The Missouri Group (2005) *News Reporting and Writing*, 8th ed, Boston: Bedford/St. Martin's. (1995)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Tsai, Clare (2005) 'Inside the Television Newsroom: An Insider's View of International News Translation in Taiwa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45-53.

Winkler, Matt (2012) *The Bloomberg Way: a Guide for Reporters and Edit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전자문헌

구글(Google). www.google.com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로이터통신(Reuters). www.reuters.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영문. <http://news.mk.co.kr/english/>

월스트리트저널(WST, The Wall Street Journal) 한국어판.
<http://kr.wsj.com/home-page>

월스트리트저널(WST, The Wall Street Journal). <http://online.wsj.com/asia>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영문. <http://english.chosun.com/>

키움증권. <http://www1.kiwoom.com>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Hursti, Kristian (2001) 'An Insider's View on Transformation and Transfer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 English-Finnish Perspective', *The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1. Retrieved April 23, 2014, from http://www.eng.helsinki.fi/hes/Translation/insiders_view1.htm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국제 뉴스 생산의 전반적 현황**

1. 국제 뉴스 생산 주체
 - 1.1. 인터뷰 대상 직함 및 경력
 - 1.2. 소속 언론사 국제 뉴스 생산 참여자의 전체 숫자와 경력
2. 국제 뉴스 생산 과정 및 방식
 - 2.1. 국제 뉴스 생산 과정 및 방식
 - 2.2. 구성원 별 역할

***번역사의 구체적인 업무 여건**

3. 번역사의 업무
 - 3.1. 국제 뉴스 생산 과정에서의 업무
 - 3.1. 뉴스 번역 시 허용되는 활동 및 자주 사용하는 전략
 4. 번역사와 다른 국제 뉴스 생산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 4.1. 의사소통 유무 및 방식
 - 4.2. 의사결정 시 최종 결정권자
5. 번역사에 대한 인식
 - 5.1. 번역사 스스로의 인식
 - 5.2. 다른 국제 뉴스 생산 주체의 인식
6. 근로 조건
 - 6.1. 고용 안정성(계약직 및 정규직 여부)
 - 6.2. 보수
 - 6.3. 교육 및 연수 기회
 - 6.4. 자격 요건(학력 및 경력) 및 채용 방식

<부록 2>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의 핵심, 창의인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Five-Jump' 전략 추진' 보도자료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www.msip.go.kr http://www.moe.go.kr http://www.moel.go.kr
2013. 8. 7(수) 조간 (온라인 8. 6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문의: 미래부 과기인재정책과 정병선 과장(02-2110-2571), 최미정 서기관(02-2110-2571) 교육부 기획담당관 이영찬 과장(02-2100-6636), 박현정 사무관(02-2100-6053)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정형우(02-2110-7164), 이영진 사무관(02-2110-7160)</p>		

창조경제의 핵심, 창의인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Five-Jump' 전략 추진
 - 미래부, 교육부, 고용부 및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발표 -

-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정부는 '13. 8. 2(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부문별 후속조치로서 미래부, 교육부,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 정부는 학벌·경쟁위주의 교육·채용 환경 등으로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 ‘Five- Jump’ 전략을 통해 ①꿈·끼 ②융합·전문 ③도전 ④글로벌 ⑤평생학습 등 미래 창의인재가 가져야할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진 배경 및 경과 : 창의인재 왜 창조경제의 핵심인가?

□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추격형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지식·정보 사회가 객체인 지식·정보에 중점을 둔 반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창조경제에서 ‘사람’은 국가혁신역량 강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그간, 정부는 ‘창의성·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교육·고용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 현장에서 창의인재 양성은 곤란하며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에 따라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대학생들은 학과공부보다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으며, 우수인재의 글로벌 유·출입도 원활하지 못하다.

○ 또한, 학벌 위주의 채용문화가 기업에 잔존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의성, 능력 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13. 6월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전략 4. ‘꿈과 끼,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미래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MOU)('13.5.14)을 체결하였으며, 시·도 관계자(4회) 및 대학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4회), 기업·연구기관·대학생 의견수렴(3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마련, '13.8.2(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Quality of News Translations by Translators for
New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Chesterman's Norms of Translation**

Hong, Jungm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at measuring the quality of news translations by translators working for media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norms of news translation were identified based on Chesterman's concepts of norms(1997), which are divided into expectancy norms and professional norms, and the norms of news translation identified were used as a set of gauges of the quality of news translation. Against the gauges, which are principles of news writing and reporting, news texts translated by translators were examined. As for research method, textual analysis on 148 pairs of source texts and target texts were conducted and complemented with interviews with 14 translators, reporters and edito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substituting or reorganizing source texts, translators' intervention in and transformation of texts help improve news value and news language as well as comply with principles of news reporting, indicating that the process and product of their translation are in line with the norms of news translation. In case of deleting, adding, or synthesizing source texts, however, translators often violate some norms of news translation, such as the principles of news reporting, which in turn can affect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s they produce. And a closer look at interview results suggests that translators' failure to comply with the norms of news translations as observed in this research is largely attributed to their lack

of knowledge or awareness of the norms of news transl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dia organization should provide the news translators with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cusing on the norms of news translation, such as basic principles of news writing and reporting, as a way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news translations the translators produce.

▶ Key Words: news translation, quality of translations, norms of news translation, principles of news writings and report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of news translation

홍정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drew97@naver.com

관심 분야: 제도번역, 뉴스번역, 번역 실무 교육

논문투고일: 2014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